

지난 1월 5일 필자는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짧은 한국체류 기간 동안 시차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 터득한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에서 자지 않고 버티는 것. 그러자면 1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동안 읽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때 한국신문은 재미는 있어도 시간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3종의 독일 신문을 집어 들고 자리에 앉았다.

세 신문 모두 문예면에서 특집으로 다룬 사 람은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탈리아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 그런데 무슨 일 일까? 같은 날 같은 사람을 세 신문 모두 다루다니? 독일에서 는 보기 드문 일이다. 신간이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의외 로 이유는 간단했다. 이날이 움 베르토 에코의 75세 생일이기 때문이었다. 한국 신문에도 금 년 들어 1월 17일까지 종합일간지에만 움베 르토 에코의 이름은 다섯번이나 언급됐다. 하 지만 다섯개 기사 모두 움베르토 에코와는 별 관련이 없는 기사였다. 특히 인천발 프랑크푸 르트행 비행기에서 읽은 17일자 모(某) 신문 사의 박스기사는 정말 가관이었다. 예뻐지고 자 하는 북한 여군의 원초적 본능을 다룬 기사 에까지 인용돼야 하는 움베르토 에코는 안쓰 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움베르토 에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책에 실 린 연보 이상의 것을 일반 독자들이 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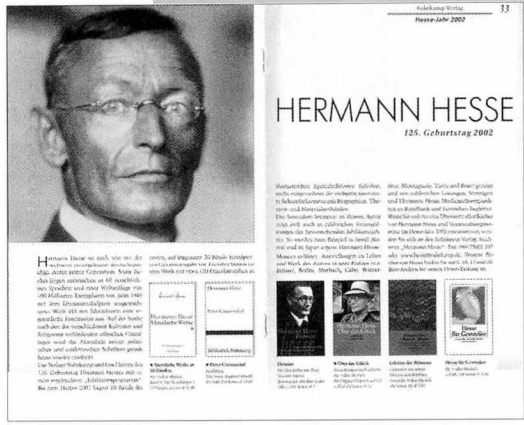
각종 기념일 통해 신문의 문예면 집착할 수 있어

이 점에서 좋은 신문 문예면이 있는 독일 독자들 은 행운아들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독일 신문 문예면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누구 보고 읽으라고 이 기사를 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필자가 근무하던 화학 실험실에서 독일 신문의 문예면을 읽던 이는 다행 히도 필자 혼자였다. 덕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읽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독일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 캘린더가 있

문화의 망각에 맞서기 위한 레클람 출판사의 《문학 캘린더》

82건의 각종 문학 관련 기념일 월별로 정리해

이정모 | 유료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2002년 레클람출판사의 《문학 캘린더》에는 올 7월 2일이 헤르만 헤세 탄생 125주년으로 기록돼 있다. 사진은 올해를 헤르만 헤세의 해로 삼고 있는 주어캄프 출판사의 커달로그.

다. 레클람 출판사에서 매년 나오는 《문학 캘린더》가 바로 그것. A6 사이즈에 130쪽 안팎 그리고 가격은 이곳 커피 한잔 값밖에 안되는 2.10 유로(우리 돈으로 2,500원 정도?). 책 값이 워낙 싸서 출판사로서는 큰 벌이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별 부담 없이 많이 사는 것으로 봐서 절대로 손해볼 책은 아닌 것 같다.

표지를 넘기니 레클람 출판사의 《문학 캘린더》는 1954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다. 차례를 살펴보고 한장 더 넘기면 82건의 각종 기념일이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그리고 이어서 17건에 대해서는 7면 내외로 작품 일부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략 언제쯤 어떤 이슈가 신문의 문예면을 장식할지, 그리고 금년에는 어떤 책을 다시 접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독일의 2002년 문학 캘린더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유명작가의 탄생 · 사망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먼저 1월 5일은 움베르토 에코의 70회 생일이었다. 2월에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사망 60주년(23일)과 존 스타인벡의 탄생 100주년(27일)이 눈에 띈다. 3월에는 존 어빙의 60회 생일(2일)과 존 업다이크의 70회 생일(18일), 마르틴 발저의 75회 생일(24일)이 있고, 6월 22일은 마키아벨리 사망 475주년이다.

7월 2일은 헤르만 헤세 탄생 125주년 기념일인데, 이에 맞춰서 주어캄프 출판사는 2002년을 '헤세의 해' 로 정하고 헤세 전집을 새로 펴내고 있다. 9월 29일은 에밀 졸라가 세상을 뜬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니, 금년 9월에는 《나나》나 《드레퓔스 사건》이 새로이 이슈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곧이어 10월 16일은 《양철북》으로 199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귄터 그라스의 75회 생일이며 12월 6일은 페터 한트케의 60회 생일이니 TV에서 두 작가를 실컷 볼 수 있을 것이다.

헤르만 헤세가 2001년이 다르고 2002년이 다를 리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 바로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굳이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서이리라.

그렇다. 문화란 '망각과 맞서는 기억의 싸움' (밀란 쿤데라)이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캘린더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학 캘린더가 있을까? ■